



국어 영역(B형)

- | | | | | |
|-------|-------|-------|-------|-------|
| 1. ⑤ | 2. ④ | 3. ⑤ | 4. ⑤ | 5. ② |
| 6. ② | 7. ④ | 8. ④ | 9. ④ | 10. ⑤ |
| 11. ② | 12. ② | 13. ② | 14. ⑤ | 15. ② |
| 16. ④ | 17. ④ | 18. ① | 19. ④ | 20. ⑤ |
| 21. ⑤ | 22. ② | 23. ④ | 24. ② | 25. ⑤ |
| 26. ① | 27. ③ | 28. ① | 29. ④ | 30. ④ |
| 31. ① | 32. ③ | 33. ④ | 34. ① | 35. ⑤ |
| 36. ④ | 37. ② | 38. ⑤ | 39. ② | 40. ③ |
| 41. ① | 42. ⑤ | 43. ④ | 44. ④ | 45. ④ |

화 법

1. 협상 방식에 대한 적절성 판단

정답 ⑤

‘저도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이기에’라는 표현으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려 한 것은 맞지만, 추가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기보다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① ‘인근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 학교 급식이 가장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부드럽게 협상하려함을 알 수 있다.
- ② 15% 인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수치로 제시하여 제안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1인당 급식량을 줄이는 데 동의한다면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매주 1회 별식 제공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2. 협상 전략에 대한 이해

정답 ④

학부모 대표의 급식 메뉴 조정에 대한 화제 전환에 대해 급식 단가 인상률에 대한 화제부터 처리하자며 중요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3. 협상 내용에 대한 적절성 판단

정답 ⑤

‘① 급식 메뉴를 조정한다.’는 [A] 부분에 나온 바와 같이 급식비 15%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 대표가 업체 대표에게 요구한 제안이다. 따라서 학교 대표가 제안한 ④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제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최종적으로 급식 단가는 10% 인상으로, 주 1회 별식은 비용 문제 때문에 간식을 주 2회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므로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있다.
- ② 친환경 식자재 비율의 85% 인상은 급식 단가의 15% 인상안에 대한 수용 대가로 제안한 것이다.
- ③ 업체 대표는 급식량을 5% 줄이는 안에 동의한다면 급식 단가를 10%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학부모 대표의 주 1회 별식 제안에 대해 업체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하자, 학교 대표가 주 2회 정도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제안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4. 대화자들의 말하기 전략 파악

정답 ⑤

‘미소를 짓는다’는 호감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표현이며, ‘우리 철호가 왜 이럴까?’ 역시 긍정적인 언어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도를 알 수 없게 하는 표현이라는 진술과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상대를 보지도 않으며 단호하게 ‘반대’라고 했으므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요.’라고 말투를 변화시킴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일리가 있어.’라고 하며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 동시에, ‘그렇지만 주민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며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놀란 표정’이라는 비언어적 표현과 ‘뭐야, 너도 그럼 찬성이야?’라는 언어적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5. 대화 내용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정답 ②

인국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와야 할 거고’에서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 동반으로 출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⑥의 미취학 아동의 출입 금지는 의견서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인국의 ‘출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거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인국의 ‘주민들과 공동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유준의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용한다면 컴퓨터가 몇 대 더 필요하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철호의 ‘학생들이 이용 우선권을 가져야 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문

6.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보기 1>의 논설문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과 관점을 명확히 설정하되, 반대 입장이나 비판까지 고려한다.'라고 하였으므로 ②의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 부합하는 것들로 제한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보기 1>의 '관련된 개념은 그 뜻을 명확히 정립하여 사용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 ③ <보기 1>의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하여 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보기 1>의 '논설문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므로'라는 부분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보기 1>의 '언어 공동체의 관습과 문화를 고려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7. 글쓰기 계획에 따른 반영 여부 확인

정답 ④

(가)와 (나)의 자료 내용은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상당함을 나타내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④의 의료 인프라가 확충되었음을 부각해야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 2>의 개요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러한 주제를 생각해보면, ④의 진술은 전체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이기도 하다.

- ① <보기 1>에서 수립한 논지의 방향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8. 자료를 반영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보기 1>의 논설문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 '글의 끝부분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전망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중심 화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④의 경우 앞으로 의료 공공성 확보를 통한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진술이다.

- ①③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체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 ② 본론에서 언급하면 좋을 내용이며, 과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내용으므로 남은 과제를 결론에 제

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9. 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 ④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1문단에서는 학생들이 과제물 등을 작성할 때 범죄 의식 없이 표절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2문단에서는 학생 대부분이 표절을 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표절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 4문단에서는 표절에 대한 예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표절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 1, 2문단에서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3, 4문단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고쳐쓰기 의견의 반영에 대한 적절성 판단

정답 ⑤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검토 의견은 1) 주제에 어울리는 제목 붙이기, 2) 서두에 시사적인 내용 언급, 3) 결말에 주요 내용 요약 후 독자의 동참 촉구, 4) 객관적 통계 자료 추가, 5)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음 고려의 다섯 가지이다. 이 중 ⑤ 결말에 외국의 표절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독자의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3)의 내용과 비슷하긴 하나 주요 내용 요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문법

11. 한글 맞춤법의 이해

정답 ②

②의 '간질여라'는 어간 '간질이-'에 어미 '-어라'가 붙어 '-이'와 '-어'가 축약된 형태인 '-여'로 음운 변화가 일어나 '간질여라'가 된 현상이다. 따라서 이는 제18항이나 제19항과 큰 관련이 없는 현상이다.

- ① '부어라'는 제18항의 2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③ 제19항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④ 제19항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⑤ 제19항 [붙임]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12. 높임 표현의 이해

정답 ②

영희의 발화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은 '말씀 없으셨니?'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계시다'는 단어 자체가 높임의 기능을 갖는 말로 주체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어휘이다. 즉, '계시다'로 수정했을 경우 담임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상대 높임법의 '하십시오'체인 '입니다.'를 사용함으로써 공적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이 문장에서 선생님은 목적어이므로 객체에 해당한다. 따

라서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특수 어휘 '뵤다'를 활용해야 한다.

- ④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과 대화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낮추는 대명사인 '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이 문장에서 '할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인데, 이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상대를 높여 이르는 대명사 '당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음운 현상의 이해

정답 ②

제11항은 겹받침에서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 탈락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즉 ②의 '닭[다]'은 탈락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① 제9항의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므로 진술과 예시 모두 적절하다.
- ③ 제12항의 '1'은 축약에 관한 내용이므로 진술과 예시 모두 적절하다.
- ④ 제12항의 '4'는 탈락에 관한 내용이므로 진술과 예시 모두 적절하다.
- ⑤ 제29항은 첨가를 반영한 것으로 진술과 예시 모두 적절하다.

14. 대화 속 표현의 문법적 사용 이해

정답 ⑤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우리'는 대화 상대를 제외한 동일 공간 내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몇 시나?'라는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아들의 늦은 귀가를 간접적으로 질책하고 있다.
- ② '-히-'라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붙잡혔어요.'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결과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감탄사 '아차!'를 사용함으로써 잘못을 갑작스럽게 깨달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못' 부정은 능력 부정으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의지 부정인 '안' 부정과 다르다. 즉, 상황에 의해 할 수 없는 부정을 의미하므로 성수는 '못'을 사용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15. 사전의 이해 및 활용

정답 ②

'부르다'은 '불러, 부르니' 등과 같이 활용하여 어간이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지만, '불리다'의 경우 '불리어, 불리니' 등과 같이 활용하여 어간이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① '불리다'의 사례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므로 '부르다

'[1]'의 ㉠이 들어간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부르다'의 ㉡은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 ④ '유도'나 '초래'는 피동형으로 쓰기 어렵다.
- ⑤ '부르다'의 ㉢은 모두 [...을]이 필요하므로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하다.

16. 중세 국어 문법의 이해

정답 ④

(가)의 '뽕·다흔·대'와 (나)의 '쓰려고 하니'를 통해 볼 때, 어두에 두 개의 자음이 쓰였던 것은 '뽕'의 'ㅃ'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ㅃ'은 같은 자음이 두 번 쓰인 것이다.

- ① (가)에서 관형격 조사는 '의'인 반면 (나)에 쓰인 관형격 조사는 '의'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는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점을 음절 왼쪽에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에는 '·'가 쓰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에는 연철(이어 적기) 표기가, (나)에는 분철(끊어 적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술

[17~20] 지문 해제

미적 판단의 적절성

미적 판단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예술 지문이다. 미적 판단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경험과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으로 나타나므로 감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미적 판단의 차이에 대해 실재론자들은 미적 속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미적 판단의 객관성을 지지한다. 반면,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판단이 이미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가 많으며 미적 판단이 다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레빈슨은 미적 속성과 미적 판단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였는데, 그는 현상적 미적 인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주관적 입장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7. 글의 전개 방식 이해

정답 ④

이 글은 미적 판단에 대한 실재론자들의 주장, 반실재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본 후 이들을 통합하는 이론인 레빈슨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④의 대비되는 두 이론을 설명한 후, 이들을 포괄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는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18. 핵심 정보에 대한 이해

정답 ①

- 이 글은 전체적으로 미적 판단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재론자들, 반실재론자들, 그리고 이들의 입장을 포괄하고 있는 레빈슨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미적 판단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①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이 글은 미적 판단의 주체에 그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이 글은 미적 판단의 다양성에 대한 논쟁 자체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이 글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이 아니다.
- ⑤ 이 진술은 실재론자들의 주장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전체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 내용 이해를 통한 구체적 자료의 이해

정답 ④

㉠ ‘구조적 속성’은 관찰이나 지각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들 중 선명한 원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일부 직사각형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하부 구조적 속성’은 정상적인 지각으로는 그 차이를 포착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에서 직선들의 길이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직사각형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맥락적 속성’은 작품의 창작자나 작품이 속한 경향 등을 일컫는다고 했으므로, <보기>의 ㉥에서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이라는 내용을 제시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및 적용

정답 ⑤

레빈슨은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적 속성을 ‘현상적 미적 인상’이라 규정하였다.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에는 어떠한 주관적 입장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 인상의 기술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술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지만, 감상자들이 술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감상자의 주관에 개입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⑤의 ‘야하다’는 현상적 미적 인상의 기술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는 있지만, 주관적 판단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관적 판단은 ‘야하다’라는 술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입되기 때문에 ‘야하다’라는 술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① ‘따분하다’,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술어들은 현상적 미적 인상과 그에 대한 감상자의 주관적 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 ② 레빈슨의 주장에 따르면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현상적 미적 인상은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적 속성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감상자들이 제한된 범위 내의 술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관에 개입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인 문

[21~23] 지문 해제

롤즈의 정의론

롤즈는 전형적인 절차주의적 정의론자로, 정의로운 사회 체제에 대한 논의에서 공리주의자들이 소수자 및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계약론적 토대하에 대안적 정의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롤즈는 정의로운 제도하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할 사회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 상태에 놓인 채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합의한 원칙 중 제1원칙은 ‘자유 원칙’이며,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롤즈의 정의론은 ‘무지의 베일’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상태라며 비판하는 입장도 있지만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윤리학적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1. 세부 정보의 구체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⑤

- ⑤ 정의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된 이유는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다.
- ① 5문단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6문단 전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1문단 전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2문단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②

① ‘원초적 상황’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6문단 첫 번째 문장). 롤즈는 만장일치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가설적 상황이므로 보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① 4문단의 ‘원초적 상황을 전제로 합의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게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3문단의 ‘몰즈는 이러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사회 체제의 기본 원칙들에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것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3문단의 ‘무지의 베일을 벗은 후에 겪을지 모를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3문단의 ‘합의 당사자들은 인간의 심리, 본성 등에 대한 지식, 제도의 영향력과 같은 사회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알고 있으며, 공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내용 파악을 통한 자료의 추론적 이해 **정답 ④**

<보기>의 C국 사례는 몰즈가 말한 정의의 제2원칙 중 ‘타고난 조건이 불리한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통해서라도 최대의 이득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차등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② A국은 ‘몰즈’의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나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B국은 ‘몰즈’가 말한 정의의 제1, 2원칙 모두 보장되지 않는 사회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C국은 ‘몰즈’가 말한 정의의 제2원칙인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사 회

[24~27] 지문 해제

정보재의 특징과 작동 방식

오늘날 정보와 지식이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상품을 정보재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재는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이 일반적인 상품과는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산 초기 단계에서 매우 큰 고정 비용이 들지만 생산이 시작되면 추가적 생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여러 생산자가 완전하게 동질한 상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따라서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이윤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에서 극대화된다.

24. 세부 정보에 대한 구체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②**

정보재의 개념이 1문단에 제시되어 있긴 하나 정보재 상품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① 1문단의 ‘등대, 교량 같은 공공재와 유사하게 비배제성을 띤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4문단의 ‘예를 들어, 음반 회사 S가 가수 B의 새 음반을 제작한다고 하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3문단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쟁 시장과 달리,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가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2문단의 ‘그럼 과연 정보재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와 4문단의 ‘그렇다면 정보재 상품의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일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5.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⑤**

수요량이 최대인 200만 장이 되는 것은 값이 0원일 때이다. 따라서 장 당 가격이 1만원일 때 수요량이 최대가 되어 생산자가 최대치의 이윤을 얻게 된다는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모든 비용은 초기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고, 한계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하였으므로(3문단 첫 번째 문장), 적절한 진술이다.
- ② 생산량이 1백만 장을 초과하면 수요 곡선이 계속 떨어지므로 생산자의 이윤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 ③ 그래프에서 장당 가격이 2만 원을 넘을 경우 수요가 없으므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④ 50만장을 생산할 경우 평균 비용이 가격과 같으므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6. 내용 이해를 통한 구체적 자료에의 적용 **정답 ①**

정보재의 성격 중 하나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비배제성’이다. <보기>의 N서비스가 음악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은 이러한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①이 가장 적절한 진술이다.

- ② 무료 다운로드로 인해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으므로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 ③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독점 시장의 양상을 막는 상황이 될 것이다.
- ⑤ 음악 파일은 추가적 생산 비용이 없지만 음반 회사의 초기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N서비스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27. 어휘의 이해

정답 ③

①이 사용된 맥락을 살펴보면, 독점 기업에게 생산량을 묻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다.'란 의미인 ③의 불필요(不必要)가 의미상 가장 적절하다.

- ① '가능하지 아니하다.'의 의미이다.
- ② '피할 수 없다.'의 의미이다.
- ④ '펼쳐진 상황 따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의 의미이다.
- ⑤ '확실하지 아니하다.'의 의미이다.

과 학

[28~30] 지문 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시공간 개념과 동시사건

아인슈타인은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을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보고, 시간과 공간을 합쳐 4차원 공간인 '시공간(spacetime)'을 주장하였다. 이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으며,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시공간 개념에서 '동시사건'은 이론적으로 관찰자들의 운동 상태와 속도 등에 따라 다르며, 관찰자들이 인식하는 사건들의 순서도 뒤바뀔 수 있다. 이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28.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①

2문단의 '빛의 속도는 불변하는 상수인 것으로 알려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② 1문단의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2문단의 '실제 세계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의 '아인슈타인은 시간도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보고,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4차원 공간, 즉 '시공간'이라고 하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1문단의 '이 시공간은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4차원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9. 자료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A입장에서 t=1 일 때, 동시 사건 선을 살펴보면 사건 β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A입장에서 t=1 일 때, α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사건 α는 A와 B의 세계선이 교차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시공간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 ② 공간선을 기준으로 볼 때, 사건 β가 사건 α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먼 공간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 ③⑤ t의 숫자를 잘 보면, A의 경우 시간이 0(α) → 1(β)임을 확인할 수 있고, B의 경우 시간이 -0.8(β) → 0(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B에게 사건 β는 α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30. 내용 파악을 통한 추론적 이해

정답 ④

본문에서 빛의 속도보다 느린 물체의 세계선은 공간 축에 대해 45도보다 기울기가 커서 시간 축에 가까운 선이며, 실제 세계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상적으로 존재할 경우 45도보다 기울기가 작아서 공간 축에 가까운 선으로 표시된다고 하였다. 전자를 시간 방향 곡선, 후자를 공간 방향 곡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체는 없으므로 대체로 빛의 속도보다 느린 물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세계선은 '시간 방향 곡선'이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① 세계선의 화살표 방향은 시간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29번의 <보기>에서 사건 α와 β를 표시할 수 있듯이, 둘 이상의 물체도 표시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③ 정지한 관찰자에게 동시사건들은 특정 시각에 공간 축과 평행한 선으로 나타난다.
- ⑤ '세계선'과 '동시사건 선'의 교차각은 공간의 위치에 비례하여 커진다.

현대 시

[31~33] 작품 해제

백석, 「노루 - 함주시초(咸州詩抄) 2」

'함주시초' 연작시는 백석이 1936년 함흥의 영생고보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함경도 함주를 배경으로 쓴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세속적 공간에 대한 쓸쓸함이 드러나 있으며, 사물이나 동물의 삶을 인간적인 삶과 동일한 차원으로 그리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노루 새끼를 데리고 온 산골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풍요롭지 않은 외양을 보인다. 그리고 노루 새끼 역시 산골 생활의 궁핍함이 묻어 있어 산골 사람과 노루 새끼의 외양과 생활의 궁핍함은 서로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이를 담담히 바라보지만 그 속에는 안타까움과 비관성이 짙게 배어 있다.

신경림, 「산에 대하여」

이 작품은 크고 높은 산만이 산이 아니라 낮은 산도 있음을 강조하여, 친근감이 느껴지고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대상으로 '산'을 대하고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산'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산 중에서도 '낮은 산'을 중심 소재로 삼아 화자가 바라는 인간적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31. 표현상 특징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 (가)에서는 '다문다문 흰 점', '새까만 눈에 하이얀 것이' 등을 통해, (나)에서는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이 엎드려 있고',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각각 산골 사람과 노루, 낮은 산을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자신의 경험을, (나)는 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으로 노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작품 모두 이야기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가)와 (나) 모두 과거,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그리움의 정서 역시 환기하고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 모두 이질적인 공간을 병치하고 있지 않다.

32.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 ③의 '산골 사람은 막베등거리 막베잠방등을 입고'는 산골 사람의 외양 묘사를 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대상과의 동일성을 발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 ① '장진 땅이 지붕 넘어 넘석하는 거리'나 '자구나무 같은 것도 있다.'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산골 사람'과 '노루 새끼'는 화자가 주목한 대상으로 작품의 전경이라 할 수 있다.
- ④ '산골 사람'과 '노루 새끼' 사이의 동일성을 표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⑤ 화자가 '노루 새끼'에 대해 느끼는 안타까움과 연민이라는 감정적 유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3. 작품 속 시구의 표현상 특징 이해

정답 ④

[D]에는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대조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낮은 산'의 변화 양상 역시 보여 주고 있지 않다.

- ① '아니다'라는 부정어의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 ②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낮은 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③ '~에게 ~이 되어 주기도 하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

여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E]는 [A]를 반복하며 변화를 줌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고전 소설

[34~36] 작품 해제

홍세태, 「김영철전」

이 작품은 명과 후금이 격돌하던 시대적 격변기에, 조선 민중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겪어야 했던 가족 이산과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나라를 위해 공로를 세웠지만 그 어떤 상도 나라로부터 받지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던 김영철이라는 인물을 통해, 민중적 시각에서 위정자를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34.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①

-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서술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② 이 작품에서는 조선과 중국으로 주인공이 이동함에 따라 공간적 배경이 변화하고 있다.
- ③ 초월적 인물이 등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이 작품의 주인공은 늙어 죽을 때까지 전쟁에 참가하거나 성을 지키는 등 군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행복한 결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⑤ 환상적인 배경 묘사는 드러나 있지 않다.

35.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⑤

- ㉞ 바로 뒷부분에 '그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라고 했는데, 이는 행복했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 두고 온 처자식들을 슬프게 했다는 안타까움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유림이 영철의 젓값을 대신 치렀으나 여전히 영철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라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② 뒷부분의 '내가 천하를 얻음이 이로부터 시작되리니'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자기가 타던 말을 득건에게 주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득건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남편의 옷을 함께 묻어 달라는 말은 저승에서라도 전사한 남편과 함께하고픈 어머니의 소망이 표출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6. 자료를 활용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 ④의 진술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작품에는 드

러나 있지 않다. 다만 영철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킨 것이나 임종 전 ‘타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또한 한스러이 여길 게 뭐 있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영철의 고국행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다.

- ① 영철의 여러 번 일어난 중군은 그만큼 조선군의 출병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알려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아라나의 말을 통해 명과 후금 사이에 끼어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조선 사람들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영철의 나이 예순이 넘었음에도 자모산성을 방비하러 가는 장면은 당시 서민들의 혹독한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서민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해했다면 영철에게 은 이백 냥을 받아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전 시가

[37~40] 작품 해제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이 작품은 지은이가 벼슬을 그만두고 경북 안동으로 물러나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작품이다. 학문과 수양을 하는 심지(心志)를 노래한 것으로 전육곡과 후육곡으로 되어 있다. 전육곡은 ‘언지(言志)’로서 자연에 동화된 생활을 노래했고, 후육곡은 ‘언학(言學)’으로서 수양 및 학문애를 표현했다.

황진이, 「청산(靑山)은 내뜻이오」

황진이의 시조로 ‘녹수(綠水)’를 수시로 변하는 남자 마음으로, ‘청산(靑山)’을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신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녹수(綠水)’가 ‘청산(靑山)’을 못 잊고 다시 돌아온다고 말함으로써 사랑하는 임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지은이가 동인(東人)의 탄핵을 받고 고향인 전라남도 창평에 낙향해 있을 때에,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빌려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현대어 해석에 나와 있는 ‘갑녀(甲女)’와 ‘을녀(乙女)’는 편의상 붙인 이름으로, 갑녀는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이며, 을녀가 지은이를 대변하는 주된 화자이다. <사미인곡>과 더불어 가사 문학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데, 특히 순수한 우리말의 구사가 절묘하며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표현에 참신성을 더한 작품이다.

37. 작품의 표현상 특징 공통점 파악

정답 ②

- (가)와 (나)는 시조, (다)는 가사이므로 모두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 ① 대상의 부제는 (나), (다)에 나타나지만, 안타까움은 (다)에만 나타난다.
 - ③ (가)~(다) 모두 계절감을 주는 어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가)~(다) 모두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38.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⑤

(가)는 학문 정진에의 의지를, (나)는 입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인간의 허무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① (가)에서 ‘청산’과 ‘유수’는 모두 변하지 않는 자연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청산’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녹수’는 변하는 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의 중장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자주 변하는 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는 물의 흐름을 보면서 ‘변치 않음’으로, (나)는 물의 흐름을 보며 ‘변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자료를 활용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나) 작품을 보면, ‘청산’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녹수’는 변하는 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신은 늘 이곳에 변함없이 있는데, 임의 마음이 물처럼 흘러가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에는 “남”이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40. 작품 속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물’에서 ‘님다히 소식’을 아득하게 느끼는 것은 임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 ① 임에게 버림받은 시적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시적 화자가 ‘높은 궤’에 오르려는 것은 임과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히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④ ‘꿈’에서 임과의 온전하지 못한 재회는 시적 화자의 절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낙월’은 시적 화자가 임과의 이별에서 느끼는 고뇌와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비극적 초월로 볼 수 있다.

현대 소설

[41~45] 작품 해제

이청준, 「축제」

‘축제’는 소설가인 이준섭이 노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꽤 알려진 작가 이준섭은 고향 집에 계신 노모의 부음을 받는다. 준섭의 도착과 함께 시골집의 장례 절차가 시작된다. 상가에 하나둘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몰려드는데 각자의 관계와 사연 따라 말과 행동이 사뭇 다르다. 노모의 죽음 앞에서 오래된 가족 간의 갈등은 오래전 집의 돈을 훔쳐 가출한 준섭의 이복 조카 용순의 등장으로 그 골이 깊어진다. 여기에 작가 이준섭을 취재하겠다는 명목으로 내려와 있는 잡지사 기자 장혜림의 등장은 용순을 비롯한 준섭의 일가친척은 물론이고 소란스러운 상가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문상객들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인물 개개인의 기억을 해집는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노모의 생애가 회고되며 그동안의 갈등과 설움이 폭발하고 또 치유의 과정을 함께 겪는다.

41. 작품의 서술상 특징 이해

정답 ①

-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등장인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갈등이 나타나면서 주인공인 준섭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다.
- ②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긴 하나 짚은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으며 서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도 않다.
 - ③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마지막 부분은 회상이 아니라 동화 속 내용에 대한 상상 부분이다.
 - ④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 ⑤ 이 글에서 서술자의 논평은 드러나 있지 않다.

42.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⑤

- ①은 어머니의 사랑을 누가 기릴 수 있는가라는 표현으로, 다시 말해 어머니의 사랑을 아무도 마음에 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랑이 은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 ① 용순이 준섭에게 불만을 내보이고 있는 장면이다.
 - ② 용순의 표정을 통해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나중에는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외동매이 은지네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동화책 내용이 준섭의 어머니와 딸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43.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기보다 할머니의 곁에 없었던 용순을 나무라고 있는 내용이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

하고 있는 부분도 특별히 없다.

- ① ‘우리 집 온 식구가 할머니 곁에서 그걸 함께 앉아 왔어.’와 ‘용순이 너야말로 할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 드렸어.’를 통해 상대방과 자신들의 행동을 대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폐약질’, ‘유치한 투정’ 등 상대의 행위를 부정적 행위로 단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 ③ 여러 질문을 연속하여 던짐으로써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다.
- ⑤ 용순이 비난하고 있는 준섭을 자신이 대신해서 옹호하고 있다.

44.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준섭은 자신의 ‘소망과 기구’를 가족들에게 직접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계속 침묵하고 마음 깊이 혼자 되새기고 있을 뿐이다.

- ① 장례를 계기로 용순과 은지네, 외동매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오랫동안 할머니를 병간호해 오면서 묵었던 감정을 겉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난장판’, ‘소란통’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족들이 할머니의 장례를 계기로 묵은 갈등을 소란스럽게 풀어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혼돈과 무질서한 모습은 ‘축제’로서의 ‘장례’가 갖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 ③ ‘집안 사람들의 불화’와는 달리 즐겁고 ‘홍겨운 노랫가락’은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장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귀가 멍멍할 정도로 시끄러운 ‘소란통’과 조용하고 차분한 ‘묵상’이 대비를 이루며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서로 공존함을 보여 주고 있다.

45. 작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 ④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셨다는 ‘아빠’의 말은 할머니께서 남은 사랑을 모두 나눠 주고 떠나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① 할머니의 임종과 관련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치매에 걸려 쇠약해진 할머니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③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지의 기원은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